

전남 40·50대 男, 70·80대 女 1인가구 급증

중장년 7만7201세대, 고령 여성 7만8855세대 혼자 살아 전체 10가구 중 4가구 '나홀로' ... 인구 불균형 부작용 심각

전남도내 40·50대 남성 1인 가구, 70·80대 여성 1인 가구가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인 거주 남성 청장년층, 여성 독거노인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인구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9월말 전남도의 1인 가구는 33만7077세대로 전체(지난해 말 현재 83만3901세대)의 40.42%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보다

2배 높은 수치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에서 전남도내 1인 가구는 2000년 13만0679가구(19.7%), 2005년 16만3718가구(24.6%), 2010년 19만7084가구(27.0%), 2015년 21만9000가구(30.4%) 등 매년 2~3만 가구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과 50·70대에서 1인 가구 급증이 두드러졌다. 여성 1인 가구는 17만4802세대로, 남성(16만2275세대)보다 1만2527세대가 많았다. 50대 1인 가구가 6만8002세

대로 가장 비중이 컸고 이어서 70대(6만642세대), 40대(4만9974세대), 80대(3만7520세대) 순이었다. 20대와 30대 1인 가구도 각각 2만2577세대, 3만6032세대였다.

전남도의 40·50대 남성 1인 가구는 7만7201세대로, 같은 연령대의 여성 1인 가구(4만775세대)보다 3만6426세대가 많았다. 또 70·80대 여성 1인 가구는 7만8855세대로, 같은 연령대의 남성 1인 가구(1만9307세대)보다 무려 5만9548세대나 초과하는 수치를 보였다. 전남도내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40·50대 중장년층의 비중이 크고, 곳곳에 홀로 늙어가는 70·80대 할머니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창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박사는 "이 같은 현상은 인구 불균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전남도의 40·50대 남성이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을 만나지 못하고, 70·80대 여성의 상당수가 홀로 노후를 맞이하는 '쓸쓸한 통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가 최근 마을 통·이장, 부녀회장, 종교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2599명으로 구성된 독거노인 등을 보살피는 '고독사(孤獨死) 지킴이단'을 발족했다. 고독사 지킴이단은 정기적으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고독사 위험이 있는 독거노인 1811명과 중장년층(40~64살) 691명을 보살피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중국요리 페스티벌 경연대회 지난 22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중국 문화주간' 행사인 '2016 중국요리페스티벌' 체험 경연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참가한 가족들이 함께 요리를 만들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국민의당 광주시당, 주요당직자 구성 완료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상설위원장, 광주시당 실·국장, 대변인단 등 주요당직자를 임명하고 조직구성을 완료했다.

광주시당은 지난 22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13개 상설위원회 위원장, 14개 분과 실·국장, 대변인, 부대변인단을 선선택했다.

각급 위원회로는 운영위원회,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윤리위원회,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이 있으며 상무위원회에서 호선 및 인준 이결했다.

상무위원회에는 김동철 시장위원장,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최경환 국회의원, 송기석 국회의원, 김성환 동구구청장,

이은방 광주시의회의장 등 시당 상무위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조직구성 완료에 따라 당원 배가 운동 2차 집중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타운홀 미팅, 소상공인 간담회, 대학생 간담회 등 현장에서 광주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계획이다.

또 다음 달 각 지역위원회 대표당원 대회도 열기로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당직자들은 최선을 다해 당 발전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 변검·정율성 음악회·전통의상 체험 등 다채

광주시 '중국 문화주간' 선포식

광주시는 지난 22일 광주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광주 시민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는 '중국 문화주간' 선포식을 갖고, 8일간의 행사에 들어갔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앞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조세철 광주시 부의장, 손시연 주(駐) 광주 중국총영사관과 시민, 중국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중국 변검, 화가가는 정율성 음악회 등 공연과 선포식장 주변에 마련한 중국 전통의상 체험, 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행

사를 즐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중국요리페스티벌 행사장에서는 중국 조리명장의 육콘서트, 중국요리와 조각 경연, 중국 유학생 공연 등이 열렸다.

중국 문화주간은 민선 6기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의 하나로 지난해 열린 중국 문화의 날을 확대해 마련한 행사다. 29일까지 광주시 일원에서 공연, 미술전시회, 문화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라며 "중국과 광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전남도 내년 일자리 창출사업 국비 149억 확보 '전국 최다'

올해의 2배 규모

전남도가 2017년 일자리창출사업 분야 국비 149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2017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가내시(假內示)액이 149억원으로 지난 2016년(75억원)의 2배 규모다. 가내시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알려준다는 의미로 임시 통보와 같은 개념이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정부 부처가 10월 중순께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해주는 2017년 예산안을 말한다.

전남도는 2016년 처음 도입한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 42억원을 확보했고, 일자리 평가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분석했다.

일자리창출사업 국비는 전남도와 시군이 참가하는 고용노동부 일반 공모사

업과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고용혁신프로젝트 사업,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 가운데 고용혁신프로젝트사업은 전남의 주력산업인 조선·철강·석유화학의 고용위기대책과 전략산업인 에너지산업 육성·농수산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청년취·창업 기반 마련 등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또 조선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 근로자와 가족의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공공근로 형태의 단기 일자리 제공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인섭 전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은 "일자리 사업 분야에서 기대 이상으로 많은 국비가 확보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 및 청년 지원 시책과 연계해 국비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진짜 군 명예 훼손했다면 책임지겠다"

광주 은 김제동 밝혀

'영장 발안'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인 김제동은 지난 21일 "국정감사 중인 출석도, 검찰 조사도 다 나가겠다고 했다. 관찰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짜 군 명예를 훼손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광주 5·18 민주광장 일대에서 열린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김제동 어깨동무 토크'에서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을 죽인 사람들, 총알 쏘라는 명령만 만들어 우리 군 목숨을 위협해 빠뜨린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설혹 그

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저는 책임진다"고도 했다.

또 그는 "정치 현안을 말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려는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모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며 "마치 이화여대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어난 최순실 딸의 사건(입학·성적 비리 의혹)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신안에 낙지 8000마리 방류

올 2만3000마리 방류 예정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낙지 생산량 증대와 갯벌생태계 조성을 위해 24일 신안 장산 해역에 낙지 8000 마리를 방류한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 11일에도 신안 지도 해역에 5000마리를 방류했다. 올해 방류 예정량은 6차례에 걸쳐 2만3000마리다.

전남 낙지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4255t으로 전국 생산량(6690t)의 63.6%를 차지한다. 그러나 국내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9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해양수산과학원은 2013년부터 어린 낙지 5만1000마리를 방류했으며 어업인 설문 등에서도 어획량 증가로 소득이 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무안·신안군과 함께 어미 낙지를 공급받아 종묘를 생산해 해당 지역에 방류하고 희망하는 시·군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연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낙지는 갯벌에 구멍을 파고 자생해 갯벌 정화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한다"며 "지속적으로 방류량을 늘려 갯벌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성숙한 지방자치!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0월 27일부터 4일간 부산 벅스코(BEXCO)에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방자치의 주역이신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관을 바랍니다.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1. 지방자치 발전 정책토론회 "생활자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0.27(목) 오후 3시	제2전시장 1층(125호)
2. 국민공감 자치토론회		
① "자치(自治)는 군자(君子)의 큰 나라로 가는 길" (강형기 충북대 교수)	10.27(목) 오후 1시 30분	제2전시장 1층(125호)
② "생생한 자치 현장! 부산 서구가 답하다" (박극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10.28(금) 오전 10시	제2전시장 1층(125호)
③ "지방자치의 끝 일자리고 먹거리다" (류재현 문화기획가)	10.28(금) 오후 2시	제2전시장 1층(125호)
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제33차 회의(주민 참관)	10.27(목) 오후 5시	제2전시장 3층(325호)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www.dad.go.kr